

올해 쌀 생산량 357만 톤, 전북만 ‘미소’

전국 생산 0.3% 감소... 전북은 생산량 소폭 늘어 ‘기상 호조 수혜지역’ 평가

올해 우리나라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기상 호조 덕분에 풍작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쌀 예상생산량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국 쌀 생산량은 357만4,000톤으로, 전년 358만5,000톤보다 0.3% 줄었다. 재배면적은 69만8,000헥타르에서 67만8,000헥타르로 2.9% 감소했지만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514kg에서 527kg으로 2.7% 증가해 전체 생산량 감소폭은 미미했다. 원주 북동읍에서 30년째 농사를 짓는 이모(63)씨는 논을 바라보며 “올해는 별이 좋아 낫일이 잘 여물었다. 논이 좋았지만 벼는 뜬살이다”며 웃었다. 실제로 올해 여름 전국 평균 일조시간은 662.7시간으로, 지난해 634.5시

간보다 28시간 늘어 벼 생육에 큰 도움을 줬다. 포기당 이삭수는 지난해 21.0개에서 22.1개로, m당 완전날수도 2만9,628개에서 3만220개로 증가해 생산성을 높였다. 전북농업기술원 관계자는 “7~8월 집중호우가 길지 않았고, 햇빛이 풍부해 낫알 충실도가 높았다. 전북 지역은 품종 갱신과 기상 대응 기술 덕분에 작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쌀 수급균형 정책은 올해도 재배면적에 영향을 미쳤다. 전국적으로 논 일부가 전락작물직불제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등 정책으로 타작물로 전환되면서 재배면적이 줄었다. 전북도 7만4,000헥타르로 전년 대비 3.5% 감소했지만 생산량은 54만6,000톤으로 0.2% 증가했다. 이는 단위면적당 생산성이 향상된 데 따른 것으로,

정책적 논 전환과 품종 개선, 기상 호조가 겹친 결과다. 익산 용안면에서 벼농사를 짓는 박모(58)씨는 “논이 줄었다고 걱정했는데, 별이 많이 들고 병충해도 적어서 올해는 쌀이 아주 잘 됐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올해 시도별 생산량은 전남 70만4,000톤, 충남 69만7,000톤, 전북 54만6,000톤 순으로 높았다. 경북과 경기도는 각각 47만7천 톤, 36만9,000톤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전북은 전국 주요 벼 재배지 중 유일하게 생산량이 증가세를 기록하며 기상 호조의 수혜지역으로 평가받았다. 반면 중북부 일부 지역은 냉해와 습해 영향으로 단위면적 생산량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올해 생산량이 350만톤대를 유지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소비 감소와 재고 부담이라는

과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지역 대학의 한 교수는 “재배면적이 줄어들었지만 단위면적 생산성이 높아 수급은 안정적이다. 하지만 향후에는 소비 확대와 품질 차별화가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오는 11월 13일 수확 후 실측을 반영한 2025년 재배면적(확정) 및 농작물생산량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6,300개 표본구역을 대상으로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으며, 조사 항목에는 1㎡당 포기수, 포기당 이삭수, 유효이삭수, 완전날수도, 피해상황, 품종 등이 포함됐다. 현미를 쌀로 환산하는 현백률도 현실화하여 92.9% 기준 외에 90.4% 기준 수치도 함께 공표된다. 전북지역 농민들은 올해 수확철에 비교적 안정적인 생산량과 품질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오상근 기자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 절임식품 가공업체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절임식품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10월 13일부터 11월 28일까지 원산지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절임식품에 사용하는 천일염 생산량은 2023년 21만~26만톤, 2024년 20만 8,000톤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절임식품에 사용하는 소금 가격은 호주산 1kg당 100~170원, 국내산 1kg당 600원~700원대로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전북농원원은 도내 211개 절임식품 업체에 대하여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나 미표시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일제 점검에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농원원 김민욱 지원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원산지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며, 더불어 소비자들은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 식별정보를 확인하여 구입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광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오상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최근 전북경제, 제조업 회복 속 소비·고용 둔화 지속

전자부품·화학 관련 업종은 여전히 부진... 산업 편차 커

전북지역 실물경제가 수출 중심의 제조업 회복세 속에서도 소비·고용 등 내수 부문은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고용률과 생산지수가 개선되는 듯 보이지만 경기 회복의 온기가 지역 전반에 퍼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관계자는 “최근 발표한 전북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7월 기준 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전기장비, 식료품 등 일부 업종에서 수출 물량이 늘어나며 제조업 가동률이 개선됐다. 군산과 익산은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과 기계계측 분야 수출이 증가했고,

전북 전체 제조업 생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5% 상승했다. 다만 전자부품·화학 관련 업종은 여전히 부진해 산업별 편차가 컸다. 반면, 도내 소비지표는 여전히 둔화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했고, 카드결제액 역시 증가폭이 0.6%에 그쳤다. 물가 부담과 고금리 장기화가 소비심리를 짓누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약화된 가운데 내구재 소비가 위축돼 소비 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건설 부문은 공공 발주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공공건설수주

는 전년 동월 대비 7.3% 늘어난 반면, 민간 건설수주는 5.4% 감소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민간 건축 수요가 줄어든 반면, 지방도로 정비와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공공 투자가 실적을 견인했다. 고용 상황은 계절적 요인과 정부 일자리 사업 영향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기준 전북의 고용률은 63.1%로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 수는 94만 2천 명으로 1만 명 가량 증가했으며, 농림어업과 제조업 부문에서 일시적 고용이 늘었다. 그러나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1.1%포인트 하락하며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오상근 기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한 전북농협 총괄본부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피해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중소기업 280곳 선정... 인증비용 지원

중기부-전북중기청, 해외규격인증획득 3차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0월 15일부터 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 3차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마지막 차수로, 총 280개 중소기업을 선정해 해외인증 획득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기술·품질·안전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증·시험·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정부사업이다. 수출 초기 기업에는 해외 진출의 문턱을 낮춰주는 실질적 지원책으로 평가된다. 이번 모집은 일반트랙(180개사)과 패스트트랙(100개사)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일반트랙은 EU의 CE(유럽통합규격인증), 미국의 NRTL(국가공인시험기관인증), 중국의 NMPA(식품·의약품 허가) 등 54개 인증을 지원. 패스트트랙은 EU CPNP(화학품), 국제

HALAL(식품·화장품) 등 8개 주요 인증을 신속 심사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기업은 전년도 매출 규모에 따라 총 소요비용의 50~70%,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당 연간 최대 4건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금액이 3,500만 원 미만인 경우(소액 인증)에는 건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수출 지역과 품목을 다변화하려는 중소기업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전북지역 수출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기회가 될 것”고 말했다. 참여기업 모집은 11월 14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전북자치도, 제2차 ILP 위원회 개최

산학연 기술연결 플랫폼 'ILP 서비스 시스템' 본격 운영 박차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14일 제2차 ILP(Industry Linkage Platform) 위원회'를 개최하고, ILP 서비스 시스템의 본격적인 운영 추진에 나섰다. ILP 서비스는 도내 공공기관과 대학이 보유한 연구성과와 기술을 기업과 연결해 산학연 맞춤형 연구협력과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전북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5년 상반기 ILP 서비스 추진경과와 시스템 구축 현황, 향후 추진방향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또한, 기술연결 수요기업 모집 결과와 기술사업화 맞춤형 지원사업의 성과 공유가 이뤄졌으며, 향후 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 방향도 검토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 ILP 서비스 시스템(https://ilp.jp.go.kr)은 지난달 30일 공식 오픈했으며, 현재 기업들이 손쉽게 기술 검색과 협력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 개선 중이다. 특히 기업-연구기관 간 기술 매칭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기반 추천 기능과 협력 지원 프로세스 자동화 기



능이 새롭게 도입됐다. 위원회는 2025년 하반기에는 더 많은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서비스 시스템의 기능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내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 성장을 가속화한다는 구상이다. 전북테크노파크 이종한 기업지원단장은 “ILP 서비스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 중개 플랫폼을 넘어 연구자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하는 혁신 네트워크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테크노파크는 현재 ILP 서비스 기술연결 수요기업 7차 모집을 진행 중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jp.g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상근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